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LAB METAL
어려운 AI, 쉽고 재미있게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11 호 |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 오늘의 AI

GPT-5.6, 개발도구 Kiro에 붙어 작업당 비용 82% 감소

오픈AI가 AWS와 손잡고 GPT-5.6을 코딩 도구 Kiro 워크플로에 최적화해 넣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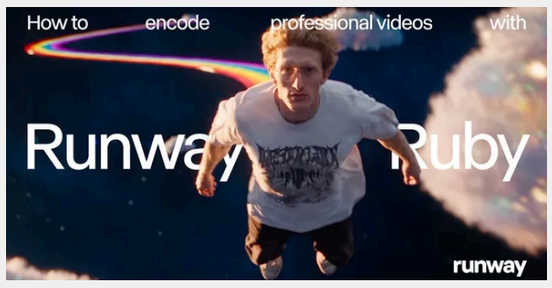


· GPT-5.6, 개발도구 Kiro에 붙어 작업당 비용 82% 감소

오픈AI가 코딩 도구 Kiro에 GPT-5.6을 넣었다고 OpenAI Developers 계정이 8월 24일 밝혔어요. 계정은 이번 통합으로 개발자가 이미 프로덕션에서 쓰고 있는 워크플로 — 소프트웨어를 계획하고 만들고 테스트하고 리뷰하는 네 단계 — 안에 오픈AI의 최신 모델이 바로 들어간다고 설명했어요.

Kiro는 kirodotdev 계정이 운영하는 스펙 기반 개발 환경이에요. 기획 문서(스펙)를 먼저 작성하고 그 문서를 기준으로 코드를 생성·검증하는 방식이라, 커서나 VS코드처럼 코드 작성 도구를 한 화면에 모은 일반 IDE보다 계획 단계에 더 무게를 둔 도구로 알려졌어요.

오픈AI는 AWS 공식 계정과 함께 Kiro와 GPT-5.6을 가격 대비 성능 기준으로 최적화했다고 전했어요. 그 결과를 코딩 작업 능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인 Terminal-Bench 2.1로 확인했는데, Kiro의 스펙 기반 개발 환경에서 돌린 GPT-5.6 Terra 버전이 성공한 작업 하나당 비용을 약 82% 줄였다고 밝혔어요. Terra는 이번 통합을 위해 다듬어진 GPT-5.6의 변형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오픈AI 블로그 글에 정리돼 있어요.



런웨이 루비, AI 영상을 방송용 HDR 규격으로 변환

이번 발표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METAL LAB이 지난 오픈AI, GPT-5.6 Sol API 요금 3개월간 20% 이상 인하에서 다뤘듯, 오픈AI는 8월 21일에도 GPT-5.6 Sol의 API 크레딧 요금을 3개월간 20% 이상 낮췄어요. 열흘 사이 두 번째 가격 인하예요.

서 GPT-5.6을 활용해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뒤 그 스펙을 그대로 구현·테스트로 넘기는 흐름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이번 소식의 핵심은 새 모델이 아니라 새 자리예요. GPT-5.6은 이미 존재하는 모델이고, 오픈AI가 이번에 한 일은 그 모델을 남의 도구 안에 더 싸게 박아 넣는 작업이에요. 오픈AI는 모델을 직접 만들지만 서버와 칩은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엔비디아에서 빌려 쓰는 회사인데, 이번에 AWS와 손잡고 Kiro 통합의 비용 효율을 벤치마크로 증명한 건 그 대여 관계를 거꾸로 활용한 사례예요. AWS 입장에서도 자사 클라우드 위에서 오픈AI 모델이 82% 싸게 돌아간다는 수치는 베드록 매대에 올릴 좋은 광고 문구가 돼요.

예전 같으면 모델 회사들이 벤치마크를 낼 때 정확도나 추론 속도를 앞세웠는데, 이번엔 성공 작업당 비용이라는 지표가 전면에 나왔어요. 8월 21일 API 요금 인하에 이어 열흘 만에 또 비용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오픈AI가 지금 경쟁하는 축이 성능보다 가격 쪽으로 확실히 옮겨갔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국내 개발팀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는 명확해요. 코딩 에이전트를 도입할 때 승률이나 정확도만 비교하지 말고, 실패한 시도까지 포함한 성공 작업당 총비용을 따져 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82%라는 숫자는 Kiro라는 특정 워크플로와 Terra라는 특정 변형에서 나온 값이라, 다른 도구·다른 작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 자체 벤치마크 없이 이 수치만 믿고 도구를 바꾸는 건 이르고요.

앞으로 몇 주 안에는 오픈AI가 다른 코딩 도구·IDE와도 비슷한 방식의 파트너 최적화 발표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성공 작업당 비용을 앞세운 벤치마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GPT-5.6 계열의 표준 홍보 문구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에미의 주장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사후훈련을 거치지 않은 "베이스 모델"이에요. 사전학습만 마치고 대화 규칙을 입히지 않은 원시 모델은 사람만큼 폭넓은 문체로 글을 쓴다고 해요. 그 결과 판그램의 탐지 시스템도 이런 베이스 모델이 쓴 글은 AI로 잡아내지 못한다고 밝혔어요. 엑스(X)에 올린 글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헤밍웨이 문체만 학습한 파인튜닝 모델이나 특정 서브레딧 글만 학습한 좁은 범위의 파인튜닝 모델, 그리고 문법이 깨진 비문 텍스트도 탐지를 피해간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사후훈련이 다양성을 좁히는 것과 반대로, 좁은 데이터로만 학습한 모델은 특정 인간 집단의 문체와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셈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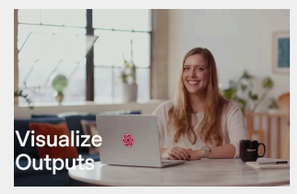
에미는 이런 다양성 논리가 워터마크가 없는 AI 텍스트에만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구글처럼 워터마크 기술을 실험해 온 곳들은 특정 토큰을 선택하는 확률 자체를 조작하는 방식을 쓰는데, 모델이 아무리 베이스 모델처럼 다양하게 써도 이 신호는 텍스트 안에 그대로 남는다는 논리예요. 그는 워터마크가 적용된 텍스트라면 앞으로도 계속 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어요.

이번 주장은 AI 텍스트 탐지 업계 전체가 마주한 딜레마를 보여줘요. 탐지 도구를 파는 회사의 CTO가 정작 "우리 도구가 잡아내는 건 안전장치가 만든 부작용"이라고 인정한 대목이 눈에 띄어요. 오픈AI와 앤스로픽, 구글은 모두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유해 발언 거부, 정치적 중립 유지 같은 규칙을 강하게 입혀요. 이 규칙들이 반복해서 쓰는 사과 문구, 정형화된 접속사 패턴을 만들어내고, 판그램 같은 탐지 서비스는 바로 그 패턴을 지문처럼 읽어내는 구조예요.

세대를 비교하면 체감이 뚜렷해요. 초기 대형 언어모델의 베이스 버전으로 글을 뽑아 보면 문체가 들쭉날쭉하고 때로는 앞뒤가 안 맞기도 했지만, 그만큼 예측 불가능했어

오늘 지면

1 GPT-5.6, 개발도구 Kiro에 붙어 작업당 비용 82% 감소
2 클로드 MCP 커넥터, 기업 통합 인증으로 일괄 관리
3 클로드 코드, npm 설치 접고 스크립트 설치로 전환
4 챗GPT 워크, 말만 하면 업무 문서로 정리해준다
5 챗GPT가 AI티 나는 이유, 안전장치 탓이라는 주장
6 크리에이티브
런웨이 루비, AI 영상을 방송용 HDR 규격으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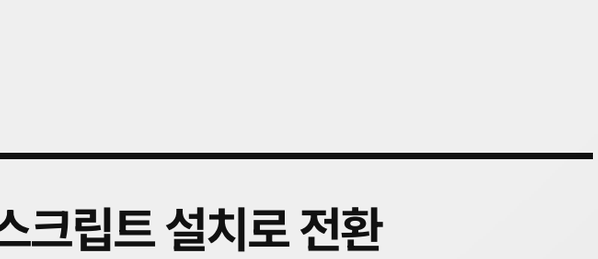
챗GPT 비주얼라이즈, 회의록을 화면으로 바꿔줘요



우크라이나 실전 전투 사진 500만 장, 영국이 처음 받는다

이 지면은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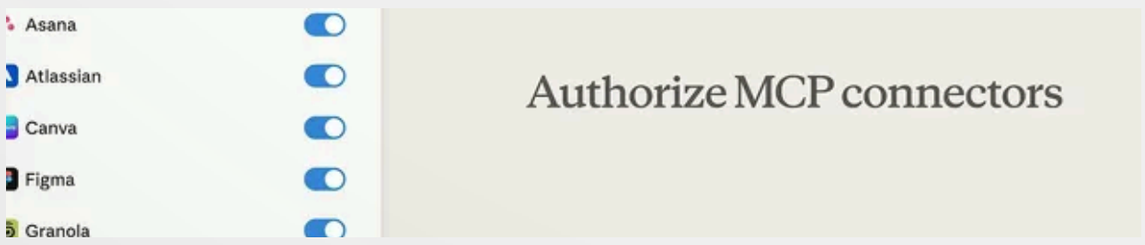


챗GPT 워크, 말만 하면 업무 문서로 정리해준다

오픈AI가 8월 24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은 'You Can Just Use Your Voice'인데, 말 그대로 키보드 없이 목소리만으로 챗GPT 워크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영상 소개 문구에는 "생각을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게 돕는다"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챗GPT 워크는 오픈AI가 8월 들어 잇따라 시연 영상을 공개해온 업무용 모드예요. 챗GPT 워크, 미팅 브리핑부터 전략덱까지 사내 시연 공개 기사

▶ 2면에 계속

클로드 MCP 커넥터, 기업 통합 인증으로 일괄 관리



앤스로픽이 클로드 팀·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Enterprise-managed auth for MCP connectors'를 정식 출시했어요. ClaudeDevs 계정이 8월 24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회사 관리자가 신원 제공자(IdP) 하나로 권한을 설정해 두면 소속 사용자들은 각자 로그인 창을 띄우지 않고도 연결된 도구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요.

MCP(Model Context Protocol)는 AI를 외부 도구·데이터에 연결하는 공용 규격으로, 흔히 'AI계의 USB-C'라고 불려요. 클로드는 이 규격을 통해 슬랙 메시지를 읽거나 노션 문서를 불러오는 식의 커넥터를 지원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각 도구마다 개별적으로 OAuth 인증을 거쳐야 연결이 됐어요. 이번 발표는 그 인증 절차를 회사 단위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더한 거예요.

▶ 2면에 계속

클로드 코드, npm 설치 접고 스크립트 설치로 전환



터미널 화면 한켠에 별 카운터가 14만2400개를 찍었어요. 앤스로픽이 만든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Claude Code)' 이야기예요. 이 도구는 명령창 안에 그대로 상주하면서 프로젝트 코드베이스를 읽고, 반복 작업을 대신 처리하고, 복잡한 코드를 설명하고, 깃(git) 작업까지 자연어 명령만으로 처리해줘요. github.com/anthropics/claude-code 저장소는 터미널이나 IDE, 혹은 깃허브에서 @claude로 태그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클로드 코드는 코드를 대신 써주는 도구지만 자동완성 수준을 넘어서요. 깃허브 이슈를 읽고 코드를 고치고, 커밋까지 알아서 정리해요. 앤스로픽은 지난 8월 17일에도 이 도구에 UI 초안을 그려주는 /design 스킬을 연구 프리뷰로 얹은 적이 있는데, Claude Design의 아트보드 워크플로우를 CLI와 데스크톱 안으로 그대로 가져온 업데이트였어요. 이번 저장소 갱신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부분, 즉 설치 방식을 정리하는 쪽에 가까워요.

◀ 1면에서 계속

클로드 MCP 커넥터, 기업 통합 인증으로 일괄 관리



1. 앤스로픽이 클로드 팀·엔터프라이즈 고객용 'Enterprise-managed auth for MCP connectors'를 정식 출시했어요
2. 관리자는 회사 신원 제공자(IdP)로 권한을 한 번에 설정하고, 사용자는 개별 로그인 없이 도구와 데이터에 바로 접근해요
3. 아사나·아틀라시안·캔바·데이터독·피그마·그래놀라·리니어·노션·슬랙·수퍼베이스 10개 서비스가 이 기능을 지원해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클로드 콘솔에서 신원 제공자와 연동해 놓으면, 조직 전체의 MCP 커넥터 접근 권한을 한 화면에서 통제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도구에 접근하는지, 언제 권한을 회수할지를 개인별로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셈이에요. 사용자 쪽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더 단순해요. 회사 계정으로 클로드에 로그인돼 있으면 슬랙이나 피그마 같은 도구가 별도 팝업 없이 바로 연결돼요.

표에 든 10개 서비스 외에, 개발자가 클로드 디렉터리에 등록한 자체 서드파티 MCP 커넥터에도 같은 방식의 엔터프라이즈 인증을 붙일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관리자가 이 기능을 켜려면 클로드 콘솔의 커넥터 관리 화면에서 회사 신원 제공자를 연결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해요. 이 단계는 개발자 문서에 정리돼 있고, 소개 블로그 글에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어요.

◀ 1면에서 계속

클로드 코드, npm 설치 접고 스크립트 설치로 전환



1. 클로드 코드 저장소가 별 14만2000개, 포크 2만2800개를 기록하며 GitHub 트렌딩에 올랐어요.
2. npm을 통한 설치는 공식적으로 지원 중단됐고, macOS·리눅스는 curl 스크립트나 Homebrew, 윈도우는 PowerShell 스크립트나 WinGet으로 설치하도록 안내가 바뀌었어요.
3. 저장소에는 플러그인 디렉터리, /bug 명령을 통한 버그 신고 체계, 사용자 데이터 수집·보관 정책이 함께 문서화돼 있어요.

저장소 안내문에는 "Installation via npm is deprecated"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요. npm(자바스크립트 패키지 관리자)으로 설치하던 경로는 더 이상 공식 권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신 운영체제별로 아래 방식을 쓰도록 안내가 바뀌었어요.

설치를 마치면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해 claude 명령 하나만 치면 실행돼요. 설치 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 안내 문서에 우회 방법과 삭제 절차까지 정리돼 있어요.

저장소에는 명령과 에이전트를 확장하는 plugins 디렉터리가 함께 들어 있어요. 문제를 발견하면 클로드 코드 안에서 /bug 명령을 치거나 깃허브 이슈로 등록하면 되고요. 사용 중 쌓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코드 수락·거부 여부, 관련 대화 내용, /bug로 제출한 피드백을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앤스로픽은 민감한 정보의 보관 기간을 제한하고, 세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며, 수집한 피드백을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어요. 사용자 소통 창구로는 Claude Developers Discord를 운영하고 있어요.

◀ 1면에서 계속

챗GPT 워크, 말만 하면 업무 문서로 정리해준다



1. 오픈AI가 2026년 8월 24일 'You Can Just Use Your Voice' 영상으로 챗GPT 워크의 음성 입력 활용법을 공개했어요
2. 말로 전달한 생각을 챗GPT 워크가 붙잡아 업무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주는 방식이에요
3. 지난 8월 18일 영업·마케팅·전략 시연에 이어 챗GPT 워크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오픈AI는 앞서 8월 11일에는 챗GPT 워크와 코덱스 사이의 프로젝트·대화·스킬 동기화를, 8월 13일에는 최근 작업 맥락을 기억하는 '컴퓨터 히스토리' 기능을 잇따라 선보였어요. 여기에 음성 입력까지 더해지면서, 챗GPT 워크는 회의 중 떠오른 생각을 바로 말로 남기고 이후 문서·이메일·발표자료로 이어붙이는 쪽으로 입력 경로를 계속 늘려가는 모습이에요. 이번 영상 자체에는 진입 경로나 지원 플랫폼 같은 세부 조건이 담기지 않았지만, 앞선 시연에서 확인된 진입 경로는 chatgpt.com/work와 맥·윈도 데스크톱 앱의 워크 모드였어요.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다듬는 일이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의 직후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말해두는 쪽이 더 자연스러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번 발표는 짧은 소개 영상 수준이라, 음성 인식이 어떤 언어를 지원하는지, 어떤 도구와 연결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챗GPT가 AI티 나는 이유, 안전장치 탓이라는 주장

판그램 CTO는 사후훈련 가드레일이 AI 문체를 좁혀 탐지를 쉽게 만든다고 설명해요



1. AI 텍스트 탐지 스타트업 판그램의 CTO 브래들리 에미는 자사 블로그에서 사후훈련 안전장치가 AI 문체의 다양성을 좁힌다고 주장했어요.
2. 사후훈련을 거치지 않은 베이스 모델이나 헤밍웨이 전용 파인튜닝처럼 범위가 좁은 모델은 판그램 탐지를 피해간다고 밝혔어요.
3. 다만 워터마크가 삽입된 텍스트는 문체 다양성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챗GPT나 클로드가 쓴 글을 읽다 보면 어딘가 비슷한 톤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AI 텍스트 탐지 서비스 판그램(Pangram)의 CTO 브래들리 에미는 이 현상의 원인이 모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짚었어요. 판그램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그는 언어모델이 이론적으로는 사람만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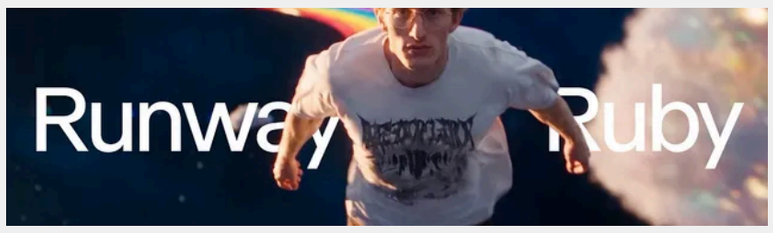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는 출시 전에 사후훈련(post-training)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사전학습된 원시 모델에 대화 예절, 위험한 요청 거절, 특정 정치적 발언 검열 같은 행동 규칙을 추가로 학습시키는 과정이에요. 에미는 이 과정이 모델의 표현 범위를 크게 좁힌다고 설명해요. 이른바 "양식 붕괴(mode collapse)"는 모델이 사람이라면 쓸 법한 여러 표현 대신 특정 문구 하나로 수렴해 버리는 현상을 가리켜요. 정상적인 언어라면 여러 표현에 확률이 고르게 퍼져야 하는데(양식 커버리지), 사후훈련을 거친 모델은 하나의 선호 표현에 확률이 몰려버린다는 거예요.

에미의 주장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사후훈련을 거치지 않은 "베이스 모델"이에요. 사전학습만 마치고 대화 규칙을 입히지 않은 원시 모델은 사람만큼 폭넓은 문체로 글을 쓴다고 해요. 그 결과 판그램의 탐지 시스템도 이런 베이스 모델이 쓴 글은 AI로 잡아내지 못한다고 밝혔어요. 엑스(X)에 올린 글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헤밍웨이 문체만 학습한 파인튜닝 모델이나 특정 서브레딧 글만 학습한 좁은 범위의 파인튜닝 모델, 그리고 문법이 깨진 비문 텍스트도 탐지를 피해간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사후훈련이 다양성을 좁히는 것과 반대로, 좁은 데이터로만 학습한 모델은 특정 인간 집단의 문체와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셈이에요.

크리에이티브

런웨이 루비, AI 영상을 방송용 HDR 규격으로 변환

생성 영상만이 아니라 실사 촬영본까지, 16비트 EXR·프로레스·HEVC로 바꿔 줘요. 맥스 요금제 이상은 지금 바로 쓸 수 있어요



1. 런웨이가 SDR 영상을 진짜 HDR로 바꾸는 '루비(Ruby)'를 공개했어요. 16비트 EXR 시퀀스나 프로레스·HEVC로 뽑을 수 있어요.
2. 생성 영상뿐 아니라 실사 촬영본도 대상이고, 맥스(Max) 요금제 이상이면 지금 바로 쓸 수 있어요.
3. 비트 심도·BT.2020 색역·전달함수 셋을 한꺼번에 바꿔야 진짜 HDR이라는 게 런웨이의 설명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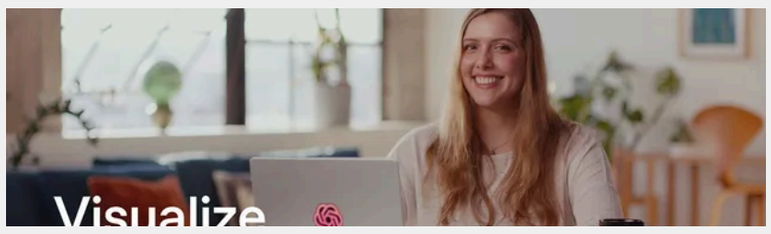
런웨이는 이번 발표를 자랑이 아니라 진단으로 시작해요. 지금까지 생성형 영상 모델의 결과물은 8비트로 강하게 압축된 H.264 파일이었고, 그 위에 색보정을 조금만 밀어도 하늘에 밴딩이 생기고 어두운 부분이 뭉개졌어요. 영상에서는 「납품 스펙에서 어떤 컬러리스트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코덱」이라고까지 표현해요. 프로레스(ProRes)와 EXR로 돌아가는 현장에서 생성 영상은 늘 혼자 튀는 파일이었다는 거예요.

'루비(Ruby)'는 SDR 영상을 HDR로 바꿔 주는 도구예요. 런웨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영상 모델의 결과물이든 대상이고, 생성 영상이 아닌 실사 촬영본도 그대로 넣을 수 있어요. 출력은 16비트 EXR 이미지 시퀀스, 또는 BT.2020 색공간에 PQ나 HLG를 얹은 프로레스·HEVC 파일이에요.

포맷마다 쓰임이 갈려요. 16비트 EXR 시퀀스는 부동소수점 프레임이라 편집기나 합성 툴에 그대로 얹히고, 키잉이나 리라이팅 같은 무거운 합성 작업을 카메라 원본만큼 견뎌요. 10비트·12비트 프로레스는 카메라 원본과 나란히 편집되면서, 컬러리스트에게 8비트 파일을 달래 가며 쓰는 대신 실제로 밀어붙일 여유를 줘요.

챗GPT 비주얼라이즈, 회의록을 화면으로 바꿔줘요

긴 문서를 인터랙티브 화면으로 바꿔 이미지나 사이트로 공유하는 스킬을 오픈AI가 시연했어요



1. 오픈AI가 2026년 8월 24일 유튜브 영상 'Make information visual with ChatGPT'로 챗GPT·코덱스의 비주얼라이즈(Visualize) 스킬 사용법을 시연했어요
2. 긴 회의록을 붙여넣으면 결정 사항·일정·미결 항목이 한눈에 보이는 인터페이스로 바뀌고, 캘린더 뷰 등으로 다시 요청해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3. 완성된 화면은 이미지로 내보내거나 사이트로 게시해 링크로 팀과 공유할 수 있어요

긴 회의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대신, 챗GPT나 코덱스에 그대로 붙여넣고 정리를 부탁하면 화면 하나로 요약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오픈AI가 2026년 8월 24일 공개한 영상 Make information visual with ChatGPT에서 오픈AI 소속 Katia Gil Guzman이 이 '비주얼라이즈(Visualize)' 스킬의 쓰임새를 보여줬어요. 스킬은 특정 일의 절차를 AI에게 미리 가르쳐 두는 사용법 묶음을 말하는데, 이번 것은 텍스트로만 나오던 답변을 표·타임라인·버튼이 있는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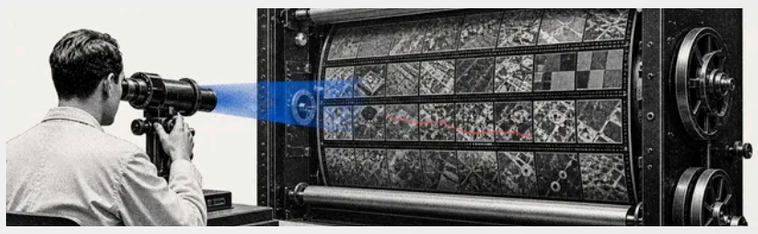
영상 속 예시는 행사 준비를 위한 회의록이에요. 이 메모를 챗GPT에 넣으면 어떤 사안이 결정됐는지, 납품 일정이 어떻게 잡혔는지, 아직 결론이 안 난 항목이 무엇인지가 한 화면에 정리돼 나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캘린더 형태로 보여줘" 같은 추가 요청을 하면 같은 정보가 캘린더 뷰로 다시 그려지는 식으로 반복 수정이 가능해요.

오픈AI는 최근 몇 주 사이 챗GPT를 업무 도구로 다루는 콘텐츠를 잇달아 내놓고 있어요. 챗GPT 워크, 미팅 브리핑부터 전략덱까지 사내 시연 공개 기사에서 다룬 것처럼, 지난 8월 19일에는 영업·마케팅·전략 세 부서가 회의 노트와 리서치 자료를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준 바 있어요. 이번 비주얼라이즈 영상도 회의록을 다루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 위에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로봇

우크라이나 실전 전투 사진 500만 장, 영국이 처음 받는다

합성 데이터로만 훈련하던 서방 방산 AI에 실전 기록이 처음 열렸어요. 데이터는 우크라이나 밖으로 안 나가요.



오늘 나온 어려운 말 풀이 전문은 metallab.ai/glossary

어벤저스랩
Avengers AI Labs
우크라이나가 2022년부터 모은 실전 전장 사진·영상 약 500만 장을 관리하는 군사용 AI 데이터 플랫폼.

델타 디지털 전투 체계
DELTA
드론·위성·센서 정보를 실시간 전장 지도로 모아 보여주는 우크라이나군의 디지털 지휘통제 체계

라스트 마일 추적
Last Mile Tracking
유도 무기나 자율 드론이 목표물에 거의 다다른 마지막 구간에서, 통신 없이 스스로 목표를 알아보고 따라붙는 기술.

비주얼라이즈
Visualize
챗GPT의 글로 된 답변을 표·일정표·버튼이 있는 화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다.

오늘 해볼 것

오늘 지면에 나온 것 중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6가지

1 비주얼라이즈

Visualize

챗GPT의 글로 된 답변을 표·일정표·버튼이 있는 화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다.

이게 뭔데

비주얼라이즈는 챗GPT가 줄글로 써주던 답변을 표나 일정표, 버튼이 있는 화면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기능이다. 긴 회의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대신 비서에게 "이 메모를 보기 좋게 정리해서 게시판처럼 만들어줘"라고 부탁하는 것과 비슷하다. 글자만 빽빽했던 문서가 결정된 사항, 일정, 아직 안 정해진 일로 나뉜 화면으로 정리돼 나온다.

한 번 나온 화면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려 달라고 하면 된다. "달력 모양으로 보여줘"라고 말하면 같은 내용이 달력 형태로 다시 그려지는 식이다. 원하면 화면 안에 버튼을 넣어서, 누르면 다음 질문이 자동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완성된 화면은 그림 파일로 저장하거나 웹사이트 링크로 만들어 동료에게 보낼 수 있다. 매번 회의록을 손으로 정리해 보고서로 만들던 사람이라면, 이 과정을 대화 몇 마디로 줄일 수 있다.

해 보려면

1. 회의록이나 메모처럼 긴 텍스트를 챗GPT 대화창에 붙여넣는다.
2. 다음처럼 요청한다: "이 회의록을 결정된 사항, 일정, 아직 결정 안 된 항목으로 나눠서 화면으로 정리해줘"
3.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캘린더 형태로 다시 보여줘"처럼 다른 형태를 요청한다.
4. 화면 안에 버튼을 넣어달라고 하면, 누르면 후속 질문이 이어지는 화면도 만들 수 있다.
5.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면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링크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다.

오늘 지면에서 — 챗GPT 비주얼라이즈, 회의록을 화면으로 바꿔줘요

2 캔버스

Canvas

챗GPT 대화창 옆에 따로 열리는 작업 공간으로, 글이나 코드를 그 자리에서 고쳐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이게 뭔데

캔버스는 챗GPT 대화창 옆에 따로 열리는 편집 화면이다. 평소 챗GPT에 뭔가를 물으면 답이 대화창에 줄줄이 쌓이지만, 캔버스가 열리면 그 답이 별도의 창으로 옮겨져서 사람이 직접 손을 대며 고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비유하자면 대화창은 편지지에 가깝다. 한 번 쓴 문장은 지나가고, 고치려면 새 편지를 다시 써야 한다. 반대로 캔버스는 화이트보드다. 같은 판 위에서 한 문단만 지우고 다시 쓰거나, 코드 한 줄만 바꿔 달라고 하면 전체를 새로 받아쓰는 대신 그 부분만 수정된 결과가 그 자리에서 보인다.

그래서 캔버스는 긴 글이나 코드를 다룰 때 특히 도움이 된다. 에세이 초안을 쓰다가 특정 문단의 어투만 바꾸거나, 프로그램 코드 중 한 함수만 고쳐 달라고 요청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 필요한 부분만 바뀐다.

해 보려면

챗GPT에서 긴 글이나 코드 작성을 요청한 뒤, "이걸 캔버스에서 작성해줘"라고 덧붙여 보자. 별도 창이 열리면 그 안에서 특정 문단이나 코드 한 부분을 가리켜 "이 부분만 더 짧게 고쳐줘" 같은 요청을 해 보면,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지면에서 — 챗GPT 비주얼라이즈, 회의록을 화면으로 바꿔줘요

3 루비

Ruby

런웨이가 8비트로 눌린 생성 영상을 방송에서 쓰는 넓고 밝은 HDR 규격으로 바꿔 주는 변환 도구

이게 뭔데

루비는 런웨이가 내놓은, 압축된 영상을 방송 화면 규격에 맞게 다시 펴 주는 변환 도구예요. 지금까지 영상 생성 도구들이 뱉어내던 결과물은 진공 포장하듯 꽉 눌러 담은 파일이었어요. 색을 조금만 밀어도 하늘에 얼룩이 지고 어두운 곳은 뭉개졌죠. 루비는 이렇게 눌려 있던 영상을 방송사가 요구하는 더 넓은 규격으로 다시 펼쳐 주는 역할을 해요.

이때 중요한 건 밝기만 슬쩍 올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압축을 풀듯이 색을 표현하는 단계 수를 늘리고, 쓸 수 있는 색의 폭을 넓히고, 픽셀 값을 실제 화면 밝기로 바꾸는 계산 규칙까지 함께 바꿔야 진짜 결과물이 나와요. 이 셋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냥 밝기만 높인 가짜, 즉 옷만 갈아입은 예전 영상이 될 뿐이라고 런웨이는 선을 그어요.

루비는 런웨이 안에서 만든 어떤 영상이든, 심지어 카메라로 직접 찍은 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결과물은 편집이나 색보정 작업에 바로 쓸 수 있는 고화질 이미지 묶음이나, 방송 편집기에 그대로 얹을 수 있는 영상 파일 두 형태로 나와요.

해 보려면

1. 런웨이에서 영상을 만들거나, 갖고 있는 영상 파일을 준비한다.
2. 루비 변환 기능을 찾아 해당 영상을 입력한다.
3. 출력 형식을 고른다 — 후반 색보정·합성용으로 쓸 것인지, 편집·마스터링용으로 쓸 것인지, 스트리밍 송출용으로 쓸 것인지에 따라 다른 옵션을 선택한다.
4. 변환된 파일을 방송용 화면이나 HDR을 지원하는 모니터에서 재생해 원본과 밝기·색 차이를 비교해 본다.

오늘 지면에서 — 런웨이 루비, AI 영상을 방송용 HDR 규격으로 변환

4 OAuth

OAuth

비밀번호를 직접 넘기지 않고, 정해진 범위의 권한만 다른 서비스에 빌려주는 인증 방식

이게 뭔데

OAuth는 한 서비스에 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도, 다른 서비스가 내 정보 중 정해진 부분에만 접근하도록 허락해주는 방식이에

이 현상은 모델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출시 전에 대화 예절이나 위험한 요청 거절 같은 행동 규칙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생긴다. 이 규칙들을 입히지 않은 원시 모델은 사람만큼 폭넓은 문체로 글을 쓰지만, 규칙을 학습한 뒤에는 특정 사과 문구나 정형화된 접속사 패턴에 확률이 몰리게 된다. 이런 몰림은 역설적으로 AI가 쓴 글임을 알아채는 힌트가 되기도 한다.

해 보려면

1. 챗봇에게 같은 질문을 표현만 살짝 바꿔서 서너 번 던져 본다. 예: "오늘 날씨 어때?", "오늘 기온 좀 알려줘", "바깥 날씨 어떤 것 같아?"
2. 답변에서 반복되는 문구나 문장 구조가 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항상 비슷한 도입 문장이나 사과 표현으로 시작하는지 확인해 본다.
3. 이번엔 "다음 문장을 서로 다른 문체로 5가지 버전으로 다시 써줘"라고 요청해 본다. 5개 버전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아니면 어휘만 살짝 바뀐 비슷한 문장인지 비교해 본다.
4. 사람 여러 명이 같은 질문에 답했을 때와 비교하면 AI 답변의 표현 폭이 얼마나 좁은지 체감할 수 있다.

오늘 지면에서 — 챗GPT가 AI티 나는 이유, 안전장치 탓이라는 주장

오늘 나온 말, 조금 더

풀이 전문은 metallab.ai/glossary

어벤저스랩

Avengers AI Labs

어벤저스랩은 우크라이나가 2022년부터 드론과 센서로 찍은 실제 전투 사진과 영상을 모아 놓은 군사용 데이터 창고예요. 쌓인 사진만 약 500만 장인데, 전부 실제 전장에서 나온 자료라 컴퓨터로 그려낸 가짜 훈련 자료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이곳의 운영 방식은 도서관보다 열람실에 가까워요. 책을 밖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정된 방 안에서만 읽게 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이 자료를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대신 허가받은 외국 기업이나 연구자가 보안이 걸린 방 안에 들어와서만 자료를 보고 AI를 훈련시킬 수 있게 해요. 훈련이 끝나면 완성된 AI의 소유권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갖고요.

이 데이터로 만든 탐지 시스템은 드론 영상에 잡힌 적 장비를 약 70% 정확도로, 물체 하나당 2.2초 만에 찾아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 영국이 외국 정부 중 처음으로 이 창고에 접근할 권한을 받으면서 화제가 됐어요.

델타 디지털 전투 체계

DELTA

델타는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디지털 전투 지휘 체계예요. 드론과 위성, 각종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의 실시간 지도 위에 모아, 지금 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 화면을 한곳에 모아 관리자가 상황을 파악하는 통합 관제실과 비슷한 역할이에요.

2022년부터 이 체계를 거쳐 쌓인 사진과 영상은 단순한 지도 정보를 넘어, 적 병력이나 차량을 알아보도록 컴퓨터를 훈련시키는 재료로도 쓰였어요. 실제 전투에서 찍힌 자료라는 점이 중요한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가상으로 만든 자료로 훈련해야 했던 반면 우크라이나는 진짜 전장 사진 수백만 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라스트 마일 추적

Last Mile Tracking

라스트 마일 추적은 드론이나 유도 무기가 목표물에 거의 다 도착한 마지막 순간, 외부 신호나 사람의 원격 조종 없이 스스로 목표를 알아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기능을 말해요.

택배로 치면 이런 거예요. 큰 배송 트럭은 지도와 내비게이션으로 동네 입구까지 정확히 찾아오지만, 정작 몇 호 문 앞에 물건을 놓을지는 기사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죠. 드론이나 미사일도 비슷해요. 먼 거리는 위성항법이나 무선 신호로 날아오지만,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상대가 그 신호를 방해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남은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은 오직 카메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날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간을 잘 해내려면 카메라가 실제로 무엇을 보게 될지, 즉 진짜 전장에서 찍힌 영상으로 미리 훈련해두는 게 중요해져요. 컴퓨터로 만든 가짜 화면보다 실제 전투 상황을 담은 영상으로 훈련한 시스템이 훨씬 잘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성공 작업당 비용

Cost per Successful Task

성공 작업당 비용은 AI가 어떤 일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는 데 평균적으로 드는 돈을 뜻해요.

택배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택배회사가 100건을 보냈는데 그중 20건이 파손돼 다시 보내야 한다면, 진짜 비용은 단순히 「택배 한 건당 요금」이 아니라 「제대로 도착한 물건 하나당 실제로 든 돈」이에요. AI 코딩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요청 한 번 보내는 값만 보면 저렴해 보여도, 중간에 실패해서 다시 시도하는 일이 잦으면 정작 쓸모 있는 결과물 하나를 얻기까지 드는 돈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구나 모델을 비교할 때 단순 요금표보다 이 지표가 더 실질적인 잣대로 쓰여요. 같은 AI라도 어떤 도구와 묶이고 어떻게 다듬어졌는지에 따라 이 값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특정 조합에서 나온 수치를 다른 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H.264

H.264

H.264는 영상 파일의 용량을 크게 줄여 주는 압축 방식이다. 카메라나 AI가 만들어 낸 원본 영상은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 스트리밍하려면 데이터를 덜어내야 한다. H.264는 이때 눈에 덜 띄는 정보부터 솎아내는 방식으로 파일을 압축하는데, 비유하자면 큰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기 좋게 화질을 낮춰 저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는 이 압축 과정에서 색상 정보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이다. H.264로 만든 영상은 한 채널당 표현할 수 있는 밝기 단계가 256단계(8비트)뿐이라, 하늘처럼 색이 서서히 변하는 장면에서 색보정을 조금만 세게 하면 계단처럼 끊기는 얼룩이 드러난다. 색을 훨씬 풍부하게(10비트 이상) 담을 수 있는 다른 방식과 비교하면 여유가 훨씬 적은 셈이다.

그래서 방송이나 영화처럼 나중에 색을 크게 손볼 일이 있는 작업에서는 H.264를 그대로 쓰지 않고, 색 정보를 더 넉넉히 담는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다룬다. 생성형 영상 AI의 결과물도 대부분 H.264로 나오다 보니, 이를 후반 작업에 쓰기 좋은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도구가 따로 필요해졌다.

EXR

EXR (OpenEXR)

EXR은 사진이나 영상 한 장 한 장의 색과 밝기 정보를 아주 세밀하게, 반올림 없이 저장하는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흔히 쓰는 사진 파일이 색을 「대충 반올림한 숫자」로 저장한다면, EXR은 「소수점까지 정확히 남긴 숫자」로 저장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화면을 확 밝게 하거나 색을 크게 밀어붙여도 원래 정보가 남아 있어서 하늘에 얼룩이 생기거나 어두운 부분이 뭉개지는 일이 덜하다.

이런 특성 덕분에 EXR은 영화나 광고의 색보정, 배경 합성 같은 후반 작업에서 카메라로 찍은 원본처럼 취급된다. 시청자에게 보